

| 찬송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주소서
3.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6 추석 가정 예배

풍성한 결실과 감사가 넘치는
한가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목사 김 광 섭

|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지금부터 2026년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 도 다 함 께

찬 송 (589장 /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다 함 께

대표기도 가 족 중

성경봉독 “시편 136:1” 자 녀 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설 교 “기억하라” 인 도 자

기 도 인 도 자

찬 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함 께

주기도문 다 함 께

가족교제 (세배 및 덕담) 다 함 께

| 가정 예배 말씀 “기억하라”

시편 136: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가꾸어 온 시간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 학교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서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온 가족들의 수고,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씩씩하게 감당해 내는 대견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수고로운 날들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올 가을 우리 가정에 넉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임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격려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2026년 한 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